

# 대장경 국민적 관심 증대...교계 준비 미흡

# 다양한 '대장경' 책 출판돼

## 대장경 천년의 해 결산

올해는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의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경상남도과 해인사는 9월 23일~11월 6일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을 마련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몰렸다. 하지만 정작 행사의 주체여야 할 조계종 총무원이나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 전체가 지지체보다 소극적으로 행사에 임했다는 지적이 많다. 교계언론사도 대장경의 해에 특별한 기획 캠페인없이 한 해를 보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은 의형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220만 이상의 인파 축전에 참여해 부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9월 23일 해인사와 가야산 일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살아있는 지혜의 숲이 열린다'를 테마로 길놀이 타악공연, 팔만대장경 이운행렬 등이 주행사장에서 펼쳐졌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축전 성공기원문 낭독을 통해 "대장경천년축전을 통해 자연과 사람, 생명의 아시아적 가치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새로운 정신예술의 장을 열자"고 밝혔다.

###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 혼돈 초래

축제가 끝난 뒤 경상남도는 이번 행사로 경상남도과 함천군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32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3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결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축제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낸 시주금 1921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1월 25일 기탁했다.

그러나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장경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 거란이 침입하자 고려가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했다. 1232년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고려는 1236년 재조대장경을 간행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팔만대장경이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은 공식 명칭에서부터 '초조대장경' 이런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국민들이 올해를 팔만대장경 조성 천년의 해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올해 대장경을 주제로 열린 학술 행사도 4회에 그쳐 학계의 무관심을 나타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와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6월 2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8월에는 강화군이 강화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고려대장경과 강화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9월에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서 '천년 고려대장경, 세계인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학술행사가 열렸다. 11월에는 불교학 연구회(회장 박경준)와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가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의의'를 점검하는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연간 100여 회 이상의 학술행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 대장경 통한 콘텐츠 창출 필요

문화컨텐츠로의 활용도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고려대장경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조정래의 <대장경> 박상진의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과 영화, 뮤지컬, 음악회 등에서 사용됐다. 특히 KBS 다큐멘터리 '다르마'는 대장경을 주절 제작돼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에서 스님들이 대장경판을 이운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남도청)

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은 천년축전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강조돼 왔다.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0년 1월 16일자 칼럼에서 '대장경의 비밀-대한민국의 르네상스'에서 대장경을 통한 콘텐츠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논설위원은 "대장경의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 르네상스를 펼쳐갈 콘텐츠 창출역량의 유전자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도저한 문화적 유전자를 되살려 다시 1000년을 내다보는 웅골찬 미래를 그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려대장경 연구소 사무처장도 "디지털·SNS시대에 맞는 활용방안을 불교계가 먼저 모색해야 한다. 종단이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불자들이 일상과 생활활동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활발한 연구 작업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 중

해인사는 이번 축전에서 팔만대장경 진본 전시와 대장경 천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콘텐츠, 다채로운 체험·문화행사가 화제를 모으며 많은 인파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인사는 축제 기간 중 세계문화유

산 팔만대장경의 연구 및 온전한 보전을 위한 '팔만대장경보존회'를 발족해 1인 1경관 인연 맺기 운동을 펼쳤다. 해인사는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운동이 5000원의 기부금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유지·보수하는 범국민적 우리문화 지키기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대장경 천년축제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관심을 지속시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선각 스님은 "세계문화축전이 모범적인 진행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계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이 잘 보전되고 위대한 불교문화로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며 대장경 전승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종단도 이번 축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장경에 대한 관심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단은 또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대장경 연구와 보존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상준 문화부 문화재팀 팀장은 "200만 이 넘는 인파가 참여하면서 대장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대장경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전년 대비 10% 증가

올해는 <초조대장경> 판각 1000년의 해로 불교계 안팎으로 대장경에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이런 열기는 출판계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대장경 관련 도서가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장경 천년이라는 호재에 비해 증가량은 미약한 수준이다.

대장경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관련 서적들은 꾸준히 출간돼 왔다. 특히 올해는 대장경을 새롭게 재조명한 역사·학술 도서들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대장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

불교계 단체에서도 대장경 천년의 해를 기념하는 출간작업들이 진행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우리말로 풀어쓴 팔만대장경을 새롭게 발간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우리말로 된 최초의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집약했다는 점과 근현대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대덕과 석학들이 함께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편찬 책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올해 발간된 서적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책 중 하나로 오윤희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가 지은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불교출판사)을 꼽을 수 있다.

오윤희 이사는 책을 통해 초조대장경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고 고려대장경에 숨어있는 진실과 가치를 설명했다.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은 고려대장경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한 점을 인정받아 학술서임에도 올해 열린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천 년의 역사 속에 깃든 대장경 이야기는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이야기가 더해진 소설이나 우화, 사진, 어린이 도서로 재구성된 도서들도 많았다.

소설가 조정래의 <대장경>은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으면서 다시 재출간돼,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또한 사진작가 이해준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기념해 3년간 해인사를 오가며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의 사계절을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펴냈다.

이밖에 <어린이 팔만대장경>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쉽게 읽는 팔만대장경> <역사 속으로 송송7(팔만대장경을 지켜라)>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18(왜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 등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함께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 도서들은 아이들이 대장경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접하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어 어린이포교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시열 불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각종 학술 세미나와 전시회 등은 성행했지만 그에 반해 출판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해 아쉽다"며 "대장경 천년의 해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장경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부처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 오페라·뮤지컬 등 대장경 공연 이어져

초조대장경 1000년을 맞아 대장경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이 성황을 이뤘다. 경남도는 2011년 대장경 간행 천년의 해를 맞아 2010년 12월 2-3일 오페라 '대장경' 초연을 시작으로 진주, 김해 등 경남 일대 문화예술회관에서 순회 공연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2011 대장경천년 세계 문화 축전'의 주재공연으로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된 대장경 창작 뮤지컬 '위대한 대장경'은 연일 많은 관람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열기는 초조대장경 조판지인 대구 부인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와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구 부인사는 12월 29-31일 대구시 동구문화회관에서 창작초연 '태자부'를 공연했다.

또 김의경 원작·김우욱 연출의 뮤지컬 '팔만대장경' (극단 현대극장)은 6월 20~29일 일본 후쿠오카와 요코하마, 7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무대에 올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3월 19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고려대장경 100권 불경법회. 제13대 조계종 총정사로 추대된 동화사조실 진제 스님(가운데), 고려대장경연구소 총림 스님(왼쪽),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오른쪽)

## 올해 대장경 관련 논문 11편 발표

올해 발표된 대장경 관련 논문은 11편이다. 강순에 한성대 교수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를 발표했고, 김성수 청주대 교수는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를 한국문화정보학회지에 발표했다. 또한 오윤희 고려대장경 연구소 이사는 '고려대장경 천년의 기대와 반성'을

발표했으며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려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대장경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대장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은은 기자 oasis1963@hanmail.net



# 청동 주조의 명가 天鐘社

40여년을 부처님 조성불사에 혼신을 기울여 2010년 대한민국 주조명장의 자리에 오른 천중사

항상 최선을 다해 후대에 길이 남을 부처님 조성 불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의종 2000관



부산흥법사 아미타대불 28m(청동)



진부 부석사 천수천안 부처님(청동)



광법사 삼존불(청동, 순금)



천우사 청동명화(순금, 채색)



대표 송창일

### 취급품목

- ☆ 범종
- ☆ 청동불상
- ☆ 청동명화
- ☆ 단청
- ☆ 순금불사
- ☆ 소형물주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418번지 031)763-7435,765-8321 / 팩스 : 031)797-3296      www.천중사.com